

A Subjectivity Study on the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Youth-related Department Students

Kang, Gil Won¹⁾ · Yun, Na Rang²⁾

¹⁾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²⁾Lecturer, Myongj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tives for the youth-related majors in choosing their major,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udent by categorizing their perceptions.

Method: The Q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motives for selecting majors of youth-related students, and 30 students majoring in youth-related stud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s P-sample and data were collected. For the Q sample, the final 30 questions were deriv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and literature study and analyzed through the QUANL PC1.2 program.

Results: Through this, the recognition types of major selection motives of youth-related students were largely derived into four types, and the types of recognition are as follows. Type 1 is the 'individual value pursuit type', which puts priority on one's personality and values, type 2 is the 'professional-related type', in which he chose a major because he became interested through his experiences in youth activities, and type 3 is for others. The 'mentor type', who chose a major under the influence, and wants to be a role model for the youth, and the 4th type, a 'shared growth type' who wants to be a member of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as well as self-development.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out what process the students selected their majors through, and it could be seen that this had a great impact on their college life and future career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career exploration of students who have chosen youth-related majors. We hope to help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youth-related department in the future.

Keywords: youth-related department,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Q methodology

Corresponding Author: Yun, Na Rang

Lecturer, Myo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03674,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3-3193-0932>

Email: ynr95@naver.com

Received: June, 15, 2022 Revised: June, 29, 2022 Accepted: June, 29, 2022 Publication: June, 30, 2022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주관성 연구

강길원¹⁾ · 윤나람²⁾

¹⁾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학사과정

²⁾명지대학교 강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파악하고, 인식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Q방법을 사용하였고, 수도권 소재 청소년관련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Q표본은 초점집단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최종 30문항을 도출하고 QUANL PC1.2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이를 통해,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인식유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인식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개인가치추구형’, 제2유형은 청소년기 활발한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공을 선택한 ‘전공연계형’, 제3유형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으며 자신도 청소년에게 역할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멘토형’, 그리고 제4유형은 자기개발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회발전의 일원을 희망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공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활과 향후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청소년관련학과와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어: 청소년관련학과, 전공선택동기, Q방법론

교신저자: 윤나람

명지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ORCID: <https://orcid.org/0000-0003-3193-0932>

Email: ynr95@naver.com

투고일: 2022. 6. 15. **심사일:** 2022. 6. 29. **게재확정일:** 2022. 6. 29. **발행일:** 2022. 6.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ECD가 제시한 청소년기 진로준비에서 도출한 세 가지 영역은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탐색, 미래에 대한 경험이다[1]. OECD는 청소년기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 여러 경험들이 성인기 노동시장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속한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생애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는바, 대학생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은 37.1%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신규 대졸 취업자의 고용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청소년분야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청소년관련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는 총 56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2년제(3개교), 3년제(5개교), 사이버대학 1개 등 총 9개교가 운영 중이다[4]. 대학에서도 오프라인 대학의 역할이 축소되고, 무크(MOOC), 플립러닝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꾸준히 성장해오면서 대학의 진학이 꼭 필요한지 이유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또한 학령기 인구감소는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로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약 838만 명(2021년 기준)으로 2030년에는 65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4].

이렇듯 급변하는 인구변화나 제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는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701명을 배출하였고, 주요 일자리인 청소년시설은 1992년 이전 150개의 수련시설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로 2021년 기준 81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4]. 이는 청소년관련분야의 인식변화 및 기회 제공의 확대 등 긍정적인 사회요인으로 인해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예정(2014)[6]은 진로선택동기를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이 특정한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라 하였고, 이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와 중요도로 볼 수 있다[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영향과 성적으로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8]. 특히 국내의 경우, 입시부터 전공별 모집으로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흥미, 삶의 목적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선택했는가에 따라 전공이나 학교 만족도가 다를 것이고 이는 대학 생활 적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9].

2010년 이후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 전후로 학교와 청소년기관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계획성,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 대학적응, 대학진학동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12].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로는 예비청소년지도사의 봉사경험 [13,14], 기관실습 성과측정 도구개발[15], 역량[16], 전문직 정체성[17][18], 다문화교육 인식 및 수용성[19] 등 대체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현재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진로결정, 취업 장애, 전공만족, 직업선택요인, 전공일치성 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만족할만한 전공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이나 흥미, 적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의 특성 및 교과과정, 취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공선택 과정이라 할 수 있다[7]. 특히, 청소년관련학과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바람직한 예비청소년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시점에서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이 어떠한 동기로 전공을 선택했는지 관심을 가지며, 차후 전문성 있는 예비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써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관련학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알아보고,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진로탐색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진로선택동기'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문제 2. 유형별 '전공선택동기' 인식유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특성 및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Q방법론을 실시하였다. Q방법론은 요인-분석 이론에서 발전되어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보건, 교육 및 행동과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적용되었다[20]. 사람들 개인에게 내재한 관점으로부터 주관적인 현상을 이해하며, 그러한 차원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찾아내는 것이다[21]. 따라서 연구자의 가설이 아니라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주관적으로 형성된 전공선택동기의 인식유형을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Q모집단 구성 및 Q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Q모집단 추출을 위한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청소년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4학년 남학생 2명, 3학년 남 1명, 여학생 3명으로 2021년 4월 25일 120분에 걸쳐 독립된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 면담 내용 녹음과 비밀보장,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당신이 청소년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도입 질문을 시작으로 진로선택과 장벽, 몰입, 기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참여자의 답변 수준에 따라 질문의 범위와 초점을 조정하며 진행하였다. 이때 면담 과정에서 도출된 ‘성적’은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바, 유형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삭제하였다. 초점집단면접과정에서 추출한 진술문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표 1> Q 모집단 진술문 추출 예시

초점집단 축어록	진술문
고등학교 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면서 전통적인 일방향식 교육보다는 양방향성 교육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유일하게 토요일마다 하는 청운위가 재밌었어요. 자유롭게 웃길 수 있는 공간이었고 청운위가. 이것을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뒤돌아봤을 때 아~이럴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저는 이쪽 분야에는 관심은 없었고..... 자치활동, 동아리 등에 관심 있었어요. 반장, 회장을 하면서 고2때 같이 기숙사 살던 형이 청운위를 제시해서 하게 되었어요	나는 선후배(친구)에게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이 일을 하면서 힘들거면 내가 거기를 바꿔보자. 내가 전문성을 갖춘, 수련관이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지금 지금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서. 베이킹쪽을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카페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배워놔서 사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저같이 진로 고민하는 애들한테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표 2〉 Q 표본

No	진술문	유형			
		I (N=12)	II (N=7)	III (N=7)	IV (N=4)
Q1	나는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1	.6	-.5	-.2
Q2	나는 청소년학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공을 선택했다	.4	-.3	.3	-1.2
Q3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3	1.0	2.5	.5
Q4	나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5	-.8	-.1	.5
Q5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전공을 선택했다	1.0	.5	.2	-.0
Q6	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5	1.0	.3	.4
Q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0	-1.6	-1.6	-1.5
Q8	나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3	-1.3	-.2	-.1
Q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1.3	.2	1.2	-1.0
Q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5	1.2	.4	-1.1
Q11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3	-.7	-.8	.5
Q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7	1.7	-1.7	.9
Q13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1.3	1.5	.4	.8
Q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1.5	-2.1	-1.9	-1.4
Q15	나는 나의 취미(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8	-.5	-.1	-.3
Q16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했다	.7	.3	1.5	.0
Q17	나는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했다	.5	1.0	.5	.0
Q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2.0	-1.7	1.3	-1.2
Q19	나는 선후배(친구)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7	-.7	-.7	-1.7
Q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1	1.8	1.2	1.5
Q21	나는 수입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다	-1.8	-.7	-1.4	-2.2
Q22	나는 미래에 유망한 전공을 선택했다	-.7	-.7	-.7	.2
Q23	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	.3	.1	.9
Q24	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한 전공을 선택했다	-.4	.3	.1	.9
Q25	나는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1.3	.2	-.8	.2
Q26	나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5	-.9	-.1	.8
Q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1	1.4	2.1
Q28	나는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전공을 선택했다	-.5	-.5	-.1	.7
Q29	나는 자기개발의 기회가 많은 전공을 선택했다	-.5	-.1	-.7	.9
Q30	나는 청소년관련분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전공을 선택했다	.2	.8	-.1	-.3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로서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대학생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했는지 유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구조화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 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자료 22편을 수집하여 7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Q모집단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진술문 분류 과정과 전문가들의 진술문 평정 과정, 문헌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30개의 Q표본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Q표본은 <표 2>와 같다.

2. P표본(P-sample)

P표본이란 최종 확정된 Q표본을 분류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간 내적 차이를 다루는 연구방법으로 대상자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22], 대상자의 수는 요인 생성과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21]. Q방법에서는 R방법론과 달리 일반화가 아닌 개인적 관점의 존재를 밝히고 관점들을 해석하며,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어 소수의 참여자라도 분석이 가능하다[2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유형을 파악하고자 학년, 성별, 희망취업(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33명 중 3명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30명을 P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 참여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3. Q분류(Q-Sorting)

Q분류는 P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의 편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응답을 참여하는 대상자는 근처 강의실에서 진행하였고, 비대면 응답자는 조사요령의 안내와 함께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Q분류 과정은 Q방법론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1차 분류로 진술문중 찬성 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반대하는 진술문은 왼쪽에, 그리고 중립적인 진술문은 가운데로 오도록 하여 3그룹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2차 분류는 Q표본 분포도(Q-grid)를 제작하여 진술문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검토를 통해 분포도에 숫자가 누락된 3명을 제외하고 총 3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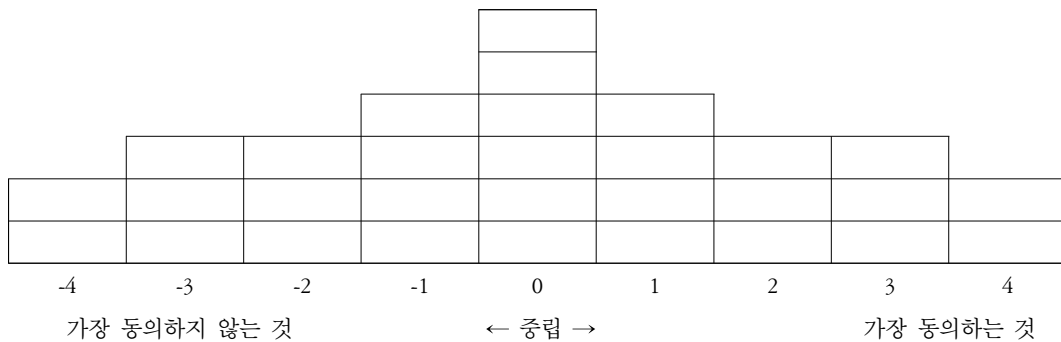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QUNAL 1.2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QUNAL 프로그램에 사용될 데이터를 코딩하는 작업을 거친 후, Q표본 분포도의 척도를 [그림 1]과 같이 9점 척도로 바꾸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한 결과, 아이젠 값(eigen value) 1.0 이상, 회전방법 배

〈표 3〉 유형별 P-표본의 일반적 사항 및 인자가중치

유형	ID	성별	학년	희망직업(관심)분야	인자가중치
제1유형 (N=12)	1	여	3	청소년지도사(활동)	.9007
	6	남	3	청소년지도자(활동,정책)	.9159
	12	여	3	청소년지도사	.5464
	14	여	4	진로상담분야	1.0129
	16	남	4	댄서	1.5460
	18	여	4	청소년지도사(사회공헌,보호)	1.3284
	19	남	4	청소년지도사	1.2608
	20	여	3	청소년지도자(활동/참여)	1.5735
	23	남	4	기업인	.7209
	26	여	3	교육/청소년단체	.6702
	28	여	2	청소년지도사	1.2833
	30	여	2	청소년지도사	1.2615
제2유형 (N=7)	5	남	4	청소년지도사	1.3860
	9	남	4	미정	.9777
	17	여	3	청소년지도사	.8669
	24	남	3	청소년지도자(연구)	.7847
	25	여	4	청소년지도사	.9051
	27	남	2	청소년지도자(활동,교육)	1.0954
	29	여	2	청소년지도사	1.0222
제3유형 (N=7)	2	여	4	청소년지도자(교육/상담)	.5094
	4	남	4	청소년지도사	1.1199
	7	여	4	청소년지도사	.7871
	11	여	4	강사	.9865
	13	여	4	청소년지도사	.6199
	21	여	3	청소년상담사	.6281
	22	남	3	청소년지도자(청소년단체)	.7853
제4유형 (N=4)	3	남	4	청소년지도사(데이터사이언티스트)	1.1729
	8	남	3	청소년지도사	.5586
	10	남	3	청소년스포츠(심리상담)	.9432
	15	남	3	음향/영상	.4377

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QUNAL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해석은 Q표본 진술문을 기초로 하며, 진술문의 표준점수(Z)를 산출하여 +1.00 이상과 -1.00이하의 진술문을 선택하여 요인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요인 적재치가 높은 P표본의 특성과 각기 다른 유형보다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을 토대로 유형을 분석하였고, 추가 면담 내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형의 형성

본 연구를 통한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인식은 네 개의 유형(factor)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의 누적 변량은 보통 35~40%의 이상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통된 요인에 근거한 적절한 해법으로 간주하는데[22], 본 연구의 누적 변량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52.24%의 높은 설명력을 볼 수 있다. Q방법론에서는 각 유형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유형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21], 유형 간 상관계수는 각 유형 간 유사성 정도를 나타낸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3유형이 .589로 중간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제3유형과 제4유형이 .313으로 가장 이질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에는 12명, 제2유형과 3유형에는 각각 7명, 제4유형에는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별 P-표본중 요인 적재치가 높은 사람은 각 요인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그가 속한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의미한다.

〈표 4〉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내용/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아이겐값	9.8644	2.3485	1.8064	1.6513
변량	.3288	.0783	.0602	.0550
누적변량	.3288	.4071	.4673	.5224

〈표 5〉 유형간 상관계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1.000	.564	.589	.358
제2유형		1.000	.383	.459
제3유형			1.000	.313
제4유형				1.000

2. 유형별 특성

가. 제1유형 : 자기주도적인 “개인가치추구”형

제1유형의 경우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우선으로 선택한 유형으로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Q10의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Z=1.46)’와 Q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Z=1.32)’에서 강한 동의를 보였다. 반면, Q18의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Z=-1.96)’와 Q19 ‘나는 선후배(친구)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Z=1.73)’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유형이 타 유형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은 Q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D=1.270)’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은 Q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D=-1.443)’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청소년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고 수입이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성격과 맞는 진로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일을 하기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에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기주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1유형을 ‘개인가치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제1유형의 문항별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46
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1.32
3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28
13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1.26
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4
1	나는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10
5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전공을 선택했다	1.03
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00
25	나는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1.26
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1.52
19	나는 선후배(친구)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73
21	나는 수업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다	-1.80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96

〈표 7〉 제1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

구분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다른 유형	차이
긍정	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460	.189	1.270
	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1.315	.157	1.158
	15	나는 나의 취미(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823	-.321	1.144
	1	나는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095	-.021	1.116
부정	25	나는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1.255	-.106	-1.149
	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084	1.492	-1.408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960	-.518	-1.443

나. 제2유형 : 청소년기 경험을 통한 “전공연계”형

제2유형은 청소년기에 활동한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진로선택을 한 유형으로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Q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Z=1.82)'와 Q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 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Z=1.71)'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Q13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Z=1.48)'순으로 강한 동의를 보였다. 또한 Q14의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Z=-2.11)와 Q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Z=-1.69)에서 비동의를 보였다. 제2유형이 타 유형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동의 진술문은 Q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 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D=2.174)'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문은 Q27의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D=-1.437)'로 나타나 청소년기관에서의 여러 활동과 진로체험이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유형은 자신이 청소년기 다양한 경험에 재미를 느껴 진로선택과 연계된 유형으로 '전공연계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8〉 제2유형의 문항별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1.82
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1.71
13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1.48
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19
8	나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33
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60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69
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2.11

〈표 9〉 제2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

구분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다른 유형	차이
긍정	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1.711	-.463	2.174
	21	나는 수입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다	-.670	-1.811	1.141
부정	4	나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847	.289	-1.136
	8	나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1.330	.024	-1.354
	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0	1.566	-1.437

다. 제3유형 :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형

제3유형은 제1유형과는 다르게 Q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Z=1.33)’가 동의 진술문으로 표시했으며, Q3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Z=2.50)’가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Q16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했다(Z=1.45)’와 Q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Z=1.38)’도 동의 진술문으로 나타나, 타인에게 받은 정서적 지원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유형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긍정 진술문은, Q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D=2.948)’였고, Q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 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표 10〉 제3유형의 문항별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2.50
16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했다	1.45
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8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33
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1.24
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1.20
21	나는 수입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다	-1.44
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62
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1.65
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1.94

〈표 11〉 제3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

구분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다른 유형	차이
긍정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333	-1.615	2.948
	3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2.495	.925	1.571
	16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을 선택했다	1.453	.328	1.125
부정	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1.653	.658	-2.311

다(D=-2.311)는 부정 진술문으로 제3유형의 독립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3유형을 멘토형'으로 명명하였다.

라. 제4유형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형

제4유형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회발전의 일원으로써 청소년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유형으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Q27 '나는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Z=2.08)'에 가장 강한 동의를 표시하면서, Q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Z=1.46)'와 Q20 '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한 전공을 선택했다(Z=1.16)'를 함께 동의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으로는 Q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 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Z=-2.311)로 청소년활동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제4유형에서 타 유형의 평균과 가장 차이가 큰 긍정 진술문은 Q29 '나는 자기개발의 기회가 많은 전공을 선택했다(D=1.327)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D=-2.098)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보다는 미래의 자기개발 기회와 더불어 사회 속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제4유형을 '동반성장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2〉 제4유형의 문항별 표준점수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8
20	나는 청소년시기에 경험한 활동과 연계된 전공을 선택했다	1.46
24	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한 전공을 선택했다	1.16
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07
2	나는 청소년관련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공을 선택했다	-1.16
18	나는 선생님(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전공을 선택했다	-1.20
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1.36
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52
12	나는 학교 및 기관에서(진로체험 등)알게 된 전공을 선택했다	-1.68
21	나는 수입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다	-2.19

〈표 13〉 제4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

구분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다른 유형	차이
긍정	29	나는 자기개발의 기회가 많은 전공을 선택했다	.897	-.431	1.327
	26	나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825	-.484	1.308
	27	내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82	.916	1.166
	24	나는 시대적 요구에 유연한 전공을 선택했다	1.159	-.004	1.162
	28	나는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전공을 선택했다	.747	-.340	1.087
	11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479	-.579	1.059
부정	3	나는 청소년(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517	1.584	-1.067
	2	나는 청소년관련분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공을 선택했다	-1.158	.148	-1.306
	9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교육관 등)와 일치하는 전공을 선택했다	-.988	.925	-1.913
	10	나는 나의 성격과 잘 맞는 전공을 선택했다	-1.066	1.031	-2.098

3. 유형간 공통점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들을 말하며, <표 14>에서와 같이 각 항목의 일치항목은 긍정 3개, 부정3개 총 6개로 나타났다. 네 유형 모두 진로선택에 공통적으로 Q6 ‘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Z=.54$)’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표 14〉 공통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6	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54
17	나는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했다	.50
23	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다	.36
22	나는 미래에 유망한 전공을 선택했다	-.46
7	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다	-1.43
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	-1.73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14 '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했다($Z=-.73$)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의 유형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수도권 소재 청소년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QUANL PC1.2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인식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유형은 '개인가치추구형'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2.8%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이 유형은 전공선택 시 먼저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반면, 전공선택 과정에서 외부환경 및 타인의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전형으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P=20(1.5735)은 면담에서 '전공선택에 있어 매우 마음에 들고 자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정말 가고 싶은 학과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음을 표현하였다.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전공을 선택했을 때, 졸업 후 전망을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보다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진로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자기주도성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에 권일남 외(2018)[24]는 청소년 주도성을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촉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자유의지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인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제2유형은 '전공연계형'으로 청소년기 경험했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유형으로 학교를 통한 진로교육 및 체험과 청소년관련기관에서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흥미를 느껴 전공까지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전공을 선택했으며, 전공선택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제2유형 특성의 전형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P=5(1.3860)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때 청소년 수련원에서 활동을 경험하면서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내게 즐길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나와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청소년활동을 통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발전시켜 진로성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로의식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진로체험의 경우, 중학생의 90%, 고등학생의 78.3%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율과 만족

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5].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자기포상제의 진로개발 영역 신설 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곳에서 청소년의 진로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5]. 보다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 중심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필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셋째, 제3유형은 ‘멘토형’으로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받았고, 자신 또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였다.

제3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P=4(1.1199)와 P=11(Z=.9865)는 “청소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청소년지도자가 되려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이 상담해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나도 선생님처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라는 면담 내용을 볼 때, 자신이 받은 긍정적 영향력을 진로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역할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욱 생산적이었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26]. 교사와의 두터운 신뢰 관계는 인정, 정서적지지, 대인기술 등을 얻을 수 있으며, 부모에게 긍정적인 진로 지지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진로탐색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27].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뿐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 심리적지지, 관련 행동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심층면담 내용을 살펴볼 때, 부모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독립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깊이에서 진로발달이 촉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지도는 부모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소년관련학 교과수업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와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자신은 진로와 전공전문성에 대한 역량 증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자기개발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다. 심층면담에 응한 응답자 P=10(9432)는 ‘청소년관련 직종은 사회발전 기여이며 그렇기에 인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라는 직업이미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관련학과 학생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서로는 남이 아닌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야 할 공동체임을 인식한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P=1은 “*청소년학은 시대의 움직임에 민감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학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중요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바라보기 어렵*

다'라고 대답하며 청소년학이 아직은 대중에게 인식되는 이미지가 아쉽다고 표현하였다. 청소년관련학 학생들이 그리는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이미지를 유형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을 위한 자격증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전문직 요건에 부합되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직업적 정체성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위의 내용으로 본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진로선택동기에 대한 시사점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관련학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요인분석과 결정요인 탐색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그들과 함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예비청소년지도자인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Q 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에 차별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전공선택동기를 유형별로 나타내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동기와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탐색의 방향성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미래 청소년지도자의 직업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1. Covacevich, C., Mann, A., Santos, C., & Champaud, J. (2021b). "Indicators of teenage career readiness: An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from eight countri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58, OECD Publishing, Paris.
2.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6.14.)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도자료.
3. 통계청 (2022). e-나라지표 (인출일: 2022.6.12.)
4. 여성가족부 (2022).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MOGEF (2022). 2022 Youth White Pap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5. Ginberg et a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https://doi.org/10.7312/ginz92170>
6. 한예정 (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 조리·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an Ye Jung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Kyung Sung University).
7. Au, Y. K. (2009). "Multilevel Analysis on The change of Students'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4), 801-817.
8. 김봉환, 김병서,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Kim BH, Kim BJ, Jeong CY (2000). School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9. 송윤정 (2013).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ong Yun Je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ng-A University)
10. 최윤정 · 김지은 (2012). 학교장의 경영가치 유형에 따른 학교장 지도성 및 학교 문제행동과 학교 효과성과의 관계: 예방상담학적 관점. 한국상담학회, 12(3), 1315-1336. (Choi YJ, Kim JE (2012). The Relations of Principals' Leadership, School Maladaptive Behaviors and School Effectiveness across Types of Principals' Leadership Valu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3), 1315-1336). DOI : 10.15703/kjc.13.3.201206.1315
11. 주현준 · 이쌍철 (2014). 학교 진로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종합연구, 12(2). (Joo HJ, Lee SC (2014). Effects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12(2))
12. 최정윤 · 신혜숙 (2016). 고교 진로교육 경험이 대학진학동기를 매개로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3). (Choi JY, Shin HS (2016).

- Investigating Effects of Career Education at High School on Overal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at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Going Motivati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research, 19(3)) DOI : 10.36907/krivet.2016.19.3.31
13. 조발그니, 류정희, 김은지 (2019).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경험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4), pp.1-28. (Cho B, ·Lyu JG, Kim EJ. (2019). Exploration Youth Related Volunteer Experiences of Prospective youth guidance.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5(4). 1-28). DOI : 10.36697/skya.2019.5.4.1
 14. 김은지 (2019). 청소년 교육봉사활동을 통한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직업인식 변화. 광주대학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Eu Jin (2019). A Study on the changes Awareness of Job of Prospective youth workers through Youth Educational Service. Gwa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Counseling Policy)
 15. 최주현, 박대권 (2020).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기관실습 성과측정 도구개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1). 47-73. (Chii JH, Park DK (2020). A study on the developing the measurement instrument for the prospective youth worker's field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6(1). 47-73). DOI : 10.36697/skya.2020.6.1.47
 16. 김태균 (2020). 청소년지도자 역량에 관한 연구 - 청소년지도자, 예비청소년지도자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8(1), 89-99. (Kim, TK (2020). A Study on the Competency of Youth worker - With a focus on youth workers and prospective youth workers -.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8(1), 47-73).
 17. 허찬, 문성호 (2014).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특성 및 영향요인. 한국청소년학회, 21(1), 343-365.(Heo. C, Sung HM (2014).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among prospective youth work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343-365)
 18. 김영조 (2016). 예비청소년지도사의 개인적 요인과 경험적 요인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Kim Young-Jo (2016). Effect of personal Youth Leader' Individual and Experiential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Kwangwoon University)
 19. 박은숙, 김 민 (2014).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다문화수용성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2(4). (Park YS, Kim M (2014).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Pre-Youth Leader. Youth facility environment. 12(4))
 20. Brown, S. R. (1996).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61-567. DOI:10.1177/104973239600600408
 21. 김홍규 (2008). Q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Kim Heung-gyu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22. 김현수, 원유미 (2000).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Kim HS, Yu YM (2000). Q Methodology. Seoul: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23. 허유성, 김정연 (2018). 예비 특수교사의 전공 선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 시기 진로결정 영향 요인 탐색. 통합교육연구, 13(2). 재인용. (Heo YS, KIM JY (2018).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cision in School Age that Influencing on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atisfaction of Major Selection. Integrated education research, 13(2).
24. 권일남, 전명순, 김정율 (2019).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의 개념정의와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 활동연구, 5(2). (Kwon IL, Jeon MS, Kim JY(2019). Concep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Youth Self-directed Activ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5(2).
25. 이민욱, 장혜정, 고요한, 문찬주 (2020). 진로자본 구축을 위한 초·중등 진로체험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21기본연구): 서울 (Lee MS, Jang HY, Ko GH, Moon CJ (2020). Directions and Tasks for Career Experience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Build Career Capital: Focusing on Career Competencies(2020-21 Basic Research): Seoul)
26.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27. Palos, R., & Drobot, L. (2010). The impact of family influence on the career choice of adolesc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407-3411.